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 Q 방법론적 접근

윤정아

동명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간호학과

A Research on the Subjectivity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Health of the Skin: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eong-Ah Yoon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 여대생 41명을 P표본으로 하여 총 141개의 Q 모집단으로부터 34개의 Q표본을 선택하여 9점 척도 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자료는 QUANL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피부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중요시 하는 '전문적 지식 추구형',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자연피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자연지향형', 고기능성 화장품이나 적극적 피부 관리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기관리형', 건강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자기 과시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각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피부건강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방법이나 접근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여대생, 관리, 피부건강, 주관성, Q 방법론

Abstract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types of the subjectivities possessed by the individual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health of the skin on the part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by applying the Q-methodology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special features. Regarding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41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 one university were made into the P-samples. And, by selecting 34 Q-samples from the total of 141 Q-populations, the forced distribution took place in terms of the 9-points scale.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the contents regarding interviews were record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QUANL progra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4 types were discovered. They appeared as 'the professional knowledge pursuing type', who consider the expertise regarding the skin management important, 'the nature-oriented type', who express the importance of the skin rather than the functional, cosmetic products, 'the active self- management type', who pursue the highly-functional cosmetic products and the active skin management, and 'the self-ostentation type', who consider the external parts, rather than the health, important. As a resul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special characteristics by each type regarding the skin health management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must be understood, and a differentiated educational method or approach method for the skin health management resulting this must be considered.

Key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nagement, Health of the skin, Subjectivity, Q-methodology.

*Corresponding Author : Jeong-Ah Yoon(yja9476@hanmail.net)

Received April 10,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8, 2018

Published July 28,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성 건강에 대한 개념은 여성의 신체, 정신, 사회, 문화 및 영적인 측면 등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1].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2]. 그러나 여대생의 경우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 음주, 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피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3].

이러한 피부상태는 자신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척도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4] 건전한 식습관, 위생적 생활, 스트레스 방지, 마사지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피부 건강 관리 행위가 필요하다[1].

최근의 피부관리는 단순한 피부미용 개념에서 벗어나 웰빙(Well-being)을 바탕으로 한 예방차원의 형태뿐 아니라 전문적인 피부관리를 제공받는 비중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다[5].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향후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외모를 중시하게 되는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는 평생의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6]. 그러나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가 각기 다른 인식과 피부유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건강에 대한 건강행태[1]와 지식수준이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6], 피부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7,8], 피부관리 이용실태와 만족도[9] 등 일반화된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이해가 가능한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유형별 접근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유형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구조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

악한다.

- 2)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Q 방법론은 개인의 잠재적 행위인 주관적 자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안되어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이해가 가능하므로[10], 본 연구는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 유형에 대한 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1 Q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관련된 문헌[1,3-9,11,12]을 검토 하였으며, 일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술문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피부상태는 어떠한지’, ‘피부 관리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는지’, ‘현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피부 관리실을 선택한다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피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141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 진술문들은 Q 방법론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들이 협의하여, 문항별로 진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을 정리하고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34개의 Q 진술문을 결정하였다.

2.2 P 표본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Q 방법론의 특성상 P 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본 연구의 P 표본은 부산의 일개 대학의 여대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는 총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Q 분류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 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34개의 카드를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부정하는 것(-4)에서부

터 중립(0), 가장 긍정하는 것(+4)으로 9점 척도 상에 강제 정규 분포하도록 하였다. Table 1

Table 1. Q Sorting Distribution

	Positive		←		Neutrality	→		Negative	
Score	-4	-3	-2	-1	0	+1	+2	+3	+4
Card No	2	3	4	5	6	5	4	3	2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가장 부정하는 경우에 1점에서부터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까지 점수화하여 PC QUANL 프로그램으로 Q 요인분석 하였다.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하여 아이겐(Eigen)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산출된 결과를 통해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4개의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Q 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1은 31.2%, 요인 2는 7.1%, 요인 3은 5.4%, 요인 4는 4.2%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41명은 유형 1에 14명, 유형 2에 11명, 유형 3에 10명, 유형4에 6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설명력이 큰 대상자 즉, 아이겐 값이 1.0이상인 보인 학습자들의 심층면담 결과를 중점 활용하였다.

Table 2. Eigenvalues and Varianc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 values	12.805	2.912	2.196	1.731
Variance	.312	.071	.054	.042
Cumulative variance	.312	.383	.437	.479

3.2 각 유형의 특성

3.2.1 유형 1 : 전문적 지식 추구형

유형 1은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고(표준점수 =2.08), 피부 관리를 함으로써 용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였다(표준점수 =1.90). 또한 색조화장품 사용은 노화예방을 위해 가능하게 사용한다(표준점수=-1.58)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 한다 (표준점수=-1.49)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Table 3

Table 3.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1(>+1.0000, <-1.0000)

No	Statement	Standard score
12	I think cosmetics should be used according to skin type	2.08
19	I think that skin care can make the appearance more prominent	1.90
6	Be sure to check the functions and methods before using cosmetics.	1.49
9	Information about skin care is mainly obtained via the Internet	1.40
25	Massage to promote blood circulation and metabolism.	-1.05
28	Instant foods avoid as much as possible by promoting aging	-1.13
15	Use high-functional cosmetics.	-1.19
20	Finding a skin care office is a waste of time and money.	-1.26
1	Sleep and wake up regularly for skin health	-1.33
3	Regularly visit the skin care room and receive care	-1.49
23	Color cosmetics use as little as possible to prevent aging.	-1.58

유형 1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32를 보인 22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를 선택하였고, 이를 선택한 이유는 “건성이 지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듯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주로 가족, 친구 등을 통해 얻는다’ 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 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피부 관리의 정보를 친구에게 일절 받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지 않으며 관리를 받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형 1은 14명 중 11명이 피부 관리실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전문성으로 보았으며, 대학생이라 피부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피부 관리실을 자주 찾진 않으나 피부문제로 피부과의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또한 화장품은 피부 타

입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화장품 사용 전에 기능을 확인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를 관련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찾아보는 등 피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전문적 지식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2.2 유형 2 : 자연지향형

유형 2는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았고(표준점수=2.12), 피부 관리를 함으로써 용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표준점수=1.52). 반면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표준점수=-2.35)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표준점수=-1.93)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Table 4

유형 2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1.85을 보인 27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와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면시간이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지성피부인데 건성용 크림을 발랐더니 건조했던 경험이 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피부의 여드름이 줄어들고 아침에 화장이 잘 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다.’와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다’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 많이 들고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라고 생각 한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며 관리 받을 때만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2번 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화장품을 선택하고, 수면시간과 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못지않게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주로 습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대중매체나 가족과 친구로부터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13]. 또한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기 보다는 자연피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으며, 색조화장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피부건강에 낫다 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의문과 피부 관리 시 전문성이나 전문가를 찾거나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을 찾아 관리 받겠다는 항목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기관을 찾는 비율보다 높은 36.8%에서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것과 일치

한다[14].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2번 유형을 ‘자연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2(>+1.0000, <-1.0000)

NO	Statement	Standard score
12	I think cosmetics should be used according to skin type	2.12
19	I think that skin care can make the appearance more prominent	1.52
9	Information about skin care is mainly obtained via the Internet	1.51
14	Information about skin care is mainly obtained through family and friends	1.31
17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skin improvement is adequate sleep time.	1.30
7	When choosing a skin care room, the expertise of the skin care professional is considered as a priority	-1.55
5	If I have skin problems, find a specialist	-1.93
3	Regularly visit the skin care room and receive care	-2.35

3.2.3 유형 3 : 적극적 자기관리형

유형 3은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2.18)고 하였으며,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피부 관리이다(표준점수=1.52), 오래된 화장품은 과감하게 버린다(표준점수=1.51)의 항목에서 강한 찬성을 보였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이 없었다면 사람은 더 빨리 노화가 된다고 생각한다(표준점수=-1.90)와 인스턴트식품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여 가능한 피한다(표준점수=-1.79),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표준점수=-1.69)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Table 5

유형 3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13을 보인 17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피부 관리이다’였고, 가장 반대한 항목은 피부 관리실을 찾는 것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 한다’와 ‘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건성, 지성, 복합성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사람마다 피부타입이 다 다르고 자신의 피부 타입과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는 관리하는 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피부개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으로는 “피부관리실을 찾는 것이 시간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피부를 스스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피부과를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간 만큼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요즘은 돈을 버는 직장인보다 벌지 않는 1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자신의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유형 3은 피부 타입에 맞게 화장품을 선택하고 피부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피부 관리임을 강조하였고, 세안의 중요성과 수면시간의 중요성과 썬이나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리를 통한 용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피부 관리 시 적절한 비용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탁월한 기능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매의사를 보였던 연구와 일치한다[6].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3은 ‘적극적 자기관리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3(>+1.0000, <-1.0000)

NO	Statement	Standard score
12	I think cosmetics should be used according to skin type	2.18
28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skin improvement is constant skin care	1.52
22	Old cosmetics boldly throw away	1.51
34	The reason why you are not interested in skin care is the economic burden	-1.69
28	Instant foods avoid as much as possible by promoting aging	-1.79
29	Without functional cosmetics, people think they get older.	-1.90

3.2.4 유형 4 : 자기과시형

유형 4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므로 세안(이중세안, 각질제거 등)에 신경 쓴다(표준점수=2.24), 본인이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기만족 때문이다(표준점수=2.12)에서 강한 찬성을 보였다. 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촉진을 위해 마사지를 한다(표준점수=-1.66), 색조화장품은 사용은 노화예방을 위해 가능한 적게 사용한다(표준점수=-1.50) 등의 항목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Table 6

유형 4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0.94을 보인 38번 대상자는 가장 찬성한 항목으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므로 세안(이중세안, 각질제거 등)에 신경 쓴다’와 본인이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기만족 때문이다’를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화장을 하고 난 후에는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기에 이를 없애려면 깨끗이 세안하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 한다”, “주위 사람의 만족보다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거울을 보고 항상 피부를 관리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가장 반대한 항목은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피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와 ‘피부건강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보다가 그대로 따라해 본 적이 있다’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관리를 해줄수록 좋아지는 것이 피부이기에 자연피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책이나 잡지를 따라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랑 맞는 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유형 4는 다른 유형에 비해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를 자기만족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세안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이 피부 관리를 받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도 하고 싶다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를 찾거나 피부건강에 좋지 않은 색조화장을 줄여야 한다거나 피부건강관리교육에 참여하거나 마사지를 한다는 부분에 부정적이거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피부에 있어 건강보다는 외형적으로 꾸며지거나 보여 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반해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유형 4를 ‘자기 과시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 for Type 4(>+1.0000, <-1.0000)

NO	Statement	Standard score
27	Because it is important to erase rather than make-up, I care about the cleansing (double cleansing, exfoliation, etc.).	2.24
32	The reason I do skin care is because of self-satisfaction	2.12
23	Color cosmetics use as little as possible to prevent aging.	-1.50
25	Massage to promote blood circulation and metabolism.	-1.66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서술적이고 일반적인 연구가 아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피부건강관리 유형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피부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접근방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전문적 지식 추구형, 자연 지향형, 적극적인 자기관리형, 자기 과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14명을 차지한 유형 1은 '전문적 지식 추구형'을 나타냈는데, 피부건강관리에 있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정기적인 피부 관리실 방문을 통한 꾸준한 관리나 건강한 생활 습관 등 실제적인 행위를 통한 피부 관리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건강관리의 필요와 관심은 있지만 전문관리에 대한 접근성은 부족했던 결과[6]와 일치하는 것으로 피부의 상태개선, 조기노화 방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전한 식습관, 마사지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피부건강관리 행위[1]로 이끌 수 있는 교육 및 접근이 필요하다.

유형 2인 자연 지향형은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선택과 충분한 수면과 세안의 중요성을 통한 꾸준한 평소의 습관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유형 3과는 다르게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자연 피부와 색조화장품을 적게 사용하는 등 자연스런 피부 관리를 중요시 하였는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피부 건강관리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피부유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대부분 집에서 관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결과[10]와 일치하는 것으로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피부과의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 3인 '적극적 자기 관리형'에 속한 사람들은 1,2 유형과 달리 피부개선을 위해 지속적 피부 관리의 필요성과 팩이나 마사지, 고기능성 화장품을 통한 적극적인 자기 관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스턴트식품이나 색조화장품의 과다 사용에 대한 노화 촉진 등 평소 피부건강을 위한 생활습관[7]이나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양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피부 관련 정보와 지식제공이 필요하다[15]. 따라서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

을수록 피부 관리에 유용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고[16]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17] 이에 대한 피부건강 교육이 필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기 과시형'으로 명명한 유형 4는 1,2, 유형과 달리 피부건강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만족과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유형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강하나,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전문가를 찾거나 교육, 마사지 등의 개인적인 노력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3, 40대 남성이 피부건조와 소양감에도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18]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강한 동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행위[6]로 이끌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피부 건강교육 및 각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건강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관리[19,20]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인 기관과의 연계로 여대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아름다움과 직결[8]되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부건강을 포함한 자기 관리를 잘할수록 대학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1]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일개 대학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피부 관련 전공생들과 비전공생들,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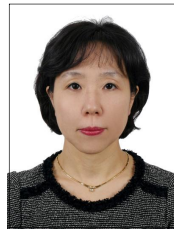
REFERENCES

- [1] G. Choi, S. H. Lee, & Y. S. Na. (2003). Effects of the health behavior on skin health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ogy*, 9(3), 63-70.
- [2] M. S. Kim. (1997). Health promotion for adolescent. *The Korean Nurse*, 36(3), 6-15.
- [3] S. H. Chang, W. J. Kwon & K. J. Chang. (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etary attitudes, dietary behaviors and diet qualities of food and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 Journal Community Nutrition*, 7(3), 293-303.
- [4] J. H. An. (2011). *The effect of Men's skin care on self-esteem*.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5] K. I. Choi. (2010). *Study on effects of service marketing activities of skin-care shop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6] S. E. Lee, Y. H. Kim & B. H. Kim. (2013). Reserch Paper : A Study on knowledge and ac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skin health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9(4), 732-738.
- [7] S. I. Choi, Y. N. Kwon & G. Y. Lee. (2012). A study on skin health knowledge and treatment-The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 and non-major in skin care. *Journal of Academic-Industrial Technology*, 13(7), 2886-2894.
- [8] S. Y. Park, S. A. Oh & Y. J. Soo. (2016). Skin care and utiliza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f 20's women student o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ogy*, 22(3), 552-559.
- [9] M. H. Lee. (2013). The study on college girls' knowledge about skin and their skin care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 2(2), 53-60.
- [10] H. G. Kim. (2008). *Q methodology :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11] S. H. Bae, I. O. Moon & Y. H. Kim. (2003).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kin health and skin health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 147-158.
- [12] K. H. Hyun, C. S. Youn. (2006). Perception analysis of knowledge and behavior on woman's skin management. *Journal of Beauty Industry*, 1(1), 81-96.
- [13] H. S. Bae. (2005). College and university girl student's awareness and behavior of skin car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3(1), 177-188.
- [14] B. H. Kim. (1995). A study on women's awareness of skin beauty care and make up.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1(2), 149-174.
- [15] J. S. Yoon & J. H. Lee. (2018). The effect of the interests of cosmetics on middle school girl's purchase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21-131.
- [16] E. J. Myong. (2000). *A study on knowledge and behavior for skin health care :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7] E. K. You & H. J. Kwon. (2016). Analysis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perception on cosmeceutic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555-560.
- [18] H. J. Kwon & J. S. Park. (2016). Effects of convergence factors of life habits and skin dry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473-481.
- [19] Y. M. Cho, S. S. Suk, S. Y. Park & Y. H. Lee. (2016).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health on the practice of skin care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Beauty*, 10(1), 55-68.
- [20] E. Y. Jang, N. H. Park, B. H. Yoon & Y. H. Lee. (2014). Relevance of subjective skin health and stress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Beauty*, 8(2), 5-18.
- [21] K. W. Kim. & C. I. Lee. (2018). A study on effects of the level of campus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self-management career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9-27.

윤 정 아 (Yoon, Jeong Ah)

[정회원]



- 2000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간호
- E-Mail : yja9476@hanmail.net